

원불교환경운동의 방향

원익선

1. 원불교의 환경정의론

원불교는 정의와 평화의 종교

- ▶ <정전> 교의편 사은 중 ‘법률 피은의 강령’ :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 ▶ 삼학 중 ‘작업취사의 요지’ :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를 버림”
- ▶ 수행편 무시선의 강령 : “육근(六根)이 무사(無事)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 ▶ ‘솔성요론’ :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 할 것이요”
- ▶ ‘최초법어’ ‘수신의 요법’ :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 할 것이요.”

천지는

〈천지 피은의 조목〉

1.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됨이요,
2.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됨이요,
3.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 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됨이요,
4. 풍 · 운 · 우 · 로(風雲雨露)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長養)되어 그

산물로써 우리가 살게 됨이요,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壽)를 얻게 됨이니라.

원불교 환경정의

1. 법신불의 진리가 현현한 현실 세계가 불의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을 법인정신으로써 바르게 해결해 가는 것.
2. 법신불 사은의 절대적 은혜가 인류의 욕망으로 막히고 단절된 것이 바르게 드러나도록 대공심(大公心)을 발휘하는 것.
3. 천지은을 알지 못하고(피은), 보은하지 못함을 바르게 알고 보은하도록 대중에게 가르치는 것.
4. 하나의 세계 속에서 지구와 인류가 영원한 공존이 가능하도록 세계 모든 인류와 연대하여 지구 환경을 보존해 가는 것.
5. 산천초목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나의 가족, 나의 분신, 나의 너로써 인식을 확장하여 모든 존재와 차별 없는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것.

2. 원불교 환경운동의 과제

1) 원불교 산하기관 환경교육 의무

〈수위단회의에서 결의 : 교법화〉

- 유아교육, 중등교육,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환경교육 의무화
- 교당 및 복지기관에서 환경 법회를 적극적으로 열도록 결의
- 원불교환경연대의 다양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실천하도록 결의
- 대사회적으로 원불교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종교로서 인식되도록 함



2) 원불교환경연대의 회원 배가운동

- ▶ 조직: 상근, 비상근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 ▶ 전문성: 그 중에는 정책 기획, 연대 담당, 정부나 기업의 환경 문제 모니터링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회원: 종교,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3년 안에 현재의 10배인 6천 명을 목표로 나가야 한다. 최소 한 달에 6천 만원 정도의 비용이라야 연대본부가 대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 ▶ 운동 활성화: 운동을 통한 홍보라야 참여가 확산된다.



2010~2020
원불교환경연대
10주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2010 여주 이포보에서 올린 첫기도의 마음으로 감사와 보은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2020 코로나를 넘어 '슬기로운 천지보은'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미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인과의 숲'
5월 17일(일) 오후 3시 수락마음숲밭(의정부교당 근처/경기 의정부시 송신로 1161)
교당 나이만큼, 단체 나이만큼, 내 나이만큼, 나무를 심어주세요.
우체국 010025-01-015977 원불교환경연대

현재 포럼 '두 유 노? 포스트 코로나'
5월 21일(목) 오후 7시 하자센터 구구구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소장-원익선(원광대학교무예)에 묻는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한 10가지 질문  온라인 실시간 방송 <https://bit.ly/2Sibj8W>

태동 응답하라 2010 '리멤버 이포보'
5월 24일(일) 오후 5시 여주 이포보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2010년 5월 24일 '강은 흘러야합니다' 간절한 기도문을 올린 환경연대 첫자리,
여주 이포보에서 다시한번 천지보은행을 다짐합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1-389475  원불교환경연대 070-7010-6667

3) 풀뿌리 환경운동에서 국제적 연대로

〈뭐라도 해야 한다〉

1. 교당, 교구, 기관 곳곳에서 개개인이 나서서 (다양한 사람 수만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2. 언론, 출판, 강연, 동영상(SNS)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원불교 환경운동을 전개한다.
3. 개인의 운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국제 기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쳐간다.
4.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5. 때로는 그린피스처럼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통해 지구환경의 시급함을 알린다.

시위가 세상을 바꾼다.

“시위 그 자체로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는 참가자들을 분명히 변화시킨다. ---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집회가 충분히 커지면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들은 행진을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급진정당에 투표하고, 시장들을 압박하고, 점거 시위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려 들 것이다.”

(조너선 닐,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p.335)



3. 원불교 환경운동의 지향점

1) 공존

처처불상 사사불공: 참된 의미에서 타자가 내 안에 있다는 의식

진공묘유의 존재: 무차별한 존재로서 생물, 무생물이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 회복

2) 소비자본주의의 배경

생산, 유통, 소비의 한계를 직시하고,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도록 할 것.

현재의 지점에서 지구상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문명을 고민할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 경제학을 폐기하고, 전 지구적인 분배 문제에 어떻게 나설 것인가라는 <지구의 분배학>으로 전환할 것.

3. 생태 영성의 확산

연기적인 절대은 속에 절대적 존재로서 존재의 기쁨을 어떻게 확보하며, 공유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

지구는 나의 영성이 확장된 무아, 대아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할 것.

모든 존재가 현존하는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불생불멸의 영원성을 취득하도록 도울 것.

4) 저항적 환경운동

원불교의 가르침인 <원불교 정의론>에 입각하여 지구 상의 모든 부조리, 불합리, 불의에 대항하여 원만구족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구축할 것.

구체적으로는 전쟁, 차별, 양극화, 권력의 독점, 노동문제 등 다양한 비문명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대항해 나갈 것. (광의의 환경운동)

결국, 비진리적 요소를 지구로부터 추방하는 일에 앞장 설 것,

* **원불교환경연구소 설립**

- ▶ 교의적인 차원에서 원불교 환경운동 이념 정립
- ▶ 원불교 환경운동의 비전, 방향 제시
- ▶ 원불교 환경운동의 인재 양성
- ▶ 정부, 기업, 국제사회의 반환경 정책 분석, 비판.
- ▶ 국제적 연대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전위적 싱크탱크